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

한나라 10년만에 정권 교체

2위 정동영 후보에 22%P차 압승... 투표율 62.9% 역대 최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유권자들은 사상 최초로 경제계 출신 인사를 대통령으로 뽑아 '실용'의 리더십을 선택했다. 한나라당은 10년만에 정권탈환에 성공했고, 정권은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 후보는 전국 249개 개표구별로

■ 17대 대통령선거 개표 현황 (20일 0시 현재, 개표율: 95.5%)

후보	득표 (%)	전국득표 (%)	광주득표 (%)	전남득표 (%)
이명박	10,911,311 (48.4)	56,875 (8.5)	88,369 (9.2)	
정동영	5,939,846 (26.3)	527,588 (79.7)	752,421 (78.6)	
이회창	3,398,320 (15.0)	22,520 (3.4)	34,599 (3.6)	
문국현	1,301,022 (5.7)	31,524 (4.7)	31,166 (3.2)	
권영길	677,016 (3.0)	13,597 (2.0)	23,046 (2.4)	
이인제	154,899 (0.6)	7,118 (1.0)	22,845 (2.3)	
허경명	91,817 (0.4)	1,547 (0.2)	2,165 (0.2)	
김민	17,086 (0.07)	289 (0.04)	738 (0.07)	
정근모	14,480 (0.06)	398 (0.06)	924 (0.09)	
전관	6,795 (0.03)	96 (0.01)	511 (0.05)	

진행된 개표 결과 95.5%의 개표가 완료된 20일 새벽 0시 현재 1천91만1천311표를 얻어 48.4%의 득표율을 기록, 593만9천846표로 26.3%를 얻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497만여표 차이로 크게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1위와 2위의 표차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경북 72.7%를 최고로 대구(69.5%), 부산(57.9%), 경남(55.2%), 울산(54.1%), 서울(53.2%)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35% 이상의 고른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정 후보는 광주(79.7%)와 전남(78.6%), 전북(81.6%) 등 호남지역 세 곳에서만 1위를 차지했다.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한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339만8천320표(15.0%)를 얻어 3위에 머물렀다.

4위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로 5.7%, 5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0%, 6위는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0.6%의 득표율로 그 뒤를 이었

다. 이번 대선은 '경제활성화와 정권 교체'의 열망이 'BBK 의혹'을 압도한 한관 승부였다. 선거전 내내 모든 정책 이슈들을 잠재울 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BBK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성공시대'를 내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에서 참담하게 패한 진보진영은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참담을 예고한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도 총청과 영남을 중심으로 정통보수세력 규합에 나설 태세이고, 한나라당도 총선 공천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복잡하게 전개될 연초 정치지형은 이

당선자에게 새로운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결과를 마감한 결과, 총 유권자 3천765만3천518명 중 2천368만3천684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62.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때 70.8%보다 7.9%포인트, 97년 제15대 대선 80.7%에 비해 무려 17.8%나 하락한 것이다. 이같은 투표율은 이번 선거를 포함해 직접선거로 치러진 11번의 대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범여권의 '정치적 메카'로 과거 대선에서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전남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 광주는 16대 대선때 78.1%에서 이번에는 64.3%로 13.8%포인트, 전남은 76.4%에서 64.7%로 11.7% 하락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관련기사 2·3·4·5·6·7·8·9·10·12·13·20면

■ 이명박 당선자 메시지

“위기의 한국 경제 꼭 살리겠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 확정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9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첫 일성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국민께서 변함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

내주셨는데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발견했다”면서 “이번에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승리한 것은 저 개인과 한나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승리라고 확

신하며, 국민께 머리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향후 5년의 국정수행 과정에서 국민을 받들어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또 “분열된 우리 사회의 화합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9일 밤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군수 이청
장흥군수 이명흠
해남군수 김충식
광주·전남 재·보궐 선거

대선과 함께 치러진 12·19 광주·전남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장성군수에 이청 무소속 후보, 장흥군수에 이명흠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해남군수에는 김충식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청 당선자



이명흠 당선자



김충식 당선자

장성군수 재선거에서는 유두석 전 군수의 부인인 이청 무소속 후보가 1만1천787표(41.2%)를, 장흥군수 재선거에서는 이명흠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1만1천486표(44.2%)를, 해남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김충식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1만8천435표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광주시의원 재선거에서는 광주 동구 제1선거구의 경우 양해령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1만5천517표(60.9%)를, 북구 제3선거구에선 전우근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1만4천417표(37.9%)를 획득해 당선됐다.

전남지역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나주 가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김종운 후보, 영암 라선거구는 김영환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영광 나선거구는 장기소 무소속 후보, 함평 가선거구는 정창우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www.ynb.co.kr

“보름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의 모든 것 연합뉴스가 만들어냅니다

연합뉴스는 1995년 12월 15일 창간 이래 12년 동안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뉴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보통'이란 '보통사람'과 '보통뉴스'를 의미합니다. '특별'이란 '특별한 뉴스'를 의미합니다. '연합'이란 '연합'을 의미합니다. '뉴스'란 '뉴스'를 의미합니다. '연합뉴스'란 '연합뉴스'를 의미합니다.

연합뉴스